

섹슈얼리티, 혹은 사회적 관계의 신체화*

-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 분석을 중심으로

김기상** · 최유준***

1. 왜 섹슈얼리티인가?
2. 섹슈얼리티와 사회적 관계
3. <강남스타일>의 섹슈얼리티와 대중의 감성
4. 새로운 감성으로서 섹슈얼리티
5. 맺음말

국문요약

왜 섹슈얼리티인가? 이 물음은 21세기 고도로 산업화된 한국 사회에서 섹슈얼리티의 사회화가 삶의 다양한 영역들 곳곳에 침투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에 직면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성의 해방을 통해 사회적 삶을 정서적으로 재조직함으로써 인간해방의 가능성을 알리는 전조 현상인가, 아니면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편승한 성욕의 해방이 합리적으로 정당화 되어가는 과정인가? 달리 묻자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혹은 무엇을 위한 해방이고, 어떤 약속을 함축하고 있는가? 만일 그것이 문제시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글은 섹슈얼리티가 감성의 층위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6).

** 책임저자, 전남대학교 HK연구교수.

*** 공동저자, 전남대학교 HK교수.

심적인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계, 심지어 계급적 관계 또한 엿볼 수 있는 매개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저 물음들에 대답하기 위해 우선 섹슈얼리티에 관한 몇 가지 선행 이론들을 검토한 후, 2012년 후반기에 전례 없는 세계적 성공을 거뒀던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 그려내는 섹슈얼리티를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과제다.

(주제어: 섹슈얼리티, 사회적 관계의 신체화, 감성, 해방, 강남스타일)

1. 왜 섹슈얼리티인가?

서양에서 성(sex)과 성적인 것(the sexual)으로부터 차용된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낱말은 18세기 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¹⁾ 이 낱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프랑스 대혁명과 더불어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경제화 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²⁾ 부르주아 사회가 정치경제적인 기능연관과 재생산연관으로 자립화되면서 한편으로 성과 성적인 것이 종교적 도그마와 전통적 관습으로부터 해방되고, 다른 한편으로 예전에는 자연적이었던 것이 점차 사회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르주아 가족의 구조변동과 함께 개인적 삶의 태도와 사회적

1) C. Borck, "Sexualität"; *Historisches philosophisches Wörterbuch*, Hrsg. von Joachim Ritter und Karlfried Gründer, Bd. 9: Se-Sp., Basel 1995, 726쪽. 기든스에 따르면, 섹슈얼리티는 이미 1800년대 생물학과 동물학에서 기술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2003, 57쪽 참조. 이하 『친밀성의 구조변동』으로 축약함.

2) 18세기 서양 부르주아 공론장의 정치경제화 과정에 관하여 위르겐 하버마스, 한승완 옮김,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출판, 2001, 15~17쪽, 135~175쪽 참조. 이하 『공론장의 구조변동』으로 축약함.

관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³⁾ 이러한 변화가 섹슈얼리티라는 낱말이 태동하게 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이며, 그것은 근대의 사회 질서가 조직되는 하나의 중심축이 섹슈얼리티였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래 다양한 개별학문들, 즉 정신의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철학적 인간학, 사회학, 성정치학 등에서 섹슈얼리티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고,⁴⁾ 섹슈얼리티 개념은 인간의 성생활 전반을 가리키는 현대적 의미를 획득했다. 즉 성에 관한 표상과 의미, 성적 욕망과 쾌락, 생물학적 성의 차이에 따른 성정체성(sexual identity) 혹은 사회적으로 요구된 성역할의 차이에 따른 성정체성(gender identity), 그리고 심지어 성의 정치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섹슈얼리티 개념을 특징짓는다.

급기야 19세기 말 후기자본주의의 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 재생산연관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사적 영역에서 자율성과 인정의 획득을 위한 “자아의 성찰적 기획”⁵⁾과 친밀성에 기

3) 18세기에서 19세기로 전환기에 부르주아 사회의 사적 영역의 변화에 관하여 『공론장의 구조변동』, 268~285쪽 참조.

4) M. Schetsche/R. Lautmann, “Sexualität”; a.a.O, 730~742쪽 참조. 섹슈얼리티에 관한 활발한 연구의 배경으로 19세기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간과할 수 없다. 이 당시 사적 영역에서 자율적인 조절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하던 시장은 모든 전통적인 제한요소로부터 해방되어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프롬에 따르면 이 당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득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은 시장법칙과 경제적 기제구조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다. 자본가는 그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사업을 확장해갔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장의 법칙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전 역시 그 자신의 생명을 지니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늘날의 과학의 문제와 조직은,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과제를 선택하지 못하고 과제가 과학자에게 스스로를 강요하게끔 되었다.” 에리히 프롬, 김병익 옮김, 『건전한 사회』, 범우사, 2001, 90~91쪽. 이하 『건전한 사회』로 축약함.

초한 사회적 관계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섹슈얼리티는 처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본성을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우연히 형성된 감성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의미체계이자 욕망의 상징적 메커니즘으로서 기능을 수행했다.⁶⁾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동/식물의 성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슈얼리티의 생물학적 계기, 혹은 신체적 계기가 전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다. 만일 신체적 계기가 없다면 섹슈얼리티의 원초적인 토대 또한 사라지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토대 때문에 섹슈얼리티 안에는 언제나 특수하고 개별적인 계기가 잠재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섹슈얼리티의 실재성은 바로 그 섹슈얼리티의 문화, 즉 “육체적 의미화작용이며 생물학적 과정이자 의미체계에 대한 활동의 결과”⁷⁾로서 문화다. 이처럼 섹슈얼리티는 육체와 의미, 자연적 본성과 문화 및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얽혀 있는 메커니즘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5) “자아의 성찰적 기획”이란 현재의 지평 위에서 미래에로 기투하기 위해 과거를 반성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다듬는 적극적 행위라고 이해될 수 있다. 『친밀성의 구조변동』, 267쪽 참조.

6) 루만에 따르면 섹슈얼리티는 “신체준거도 함께 상징화”하는 기능을 충족하는 (사랑의) “공생 상징 또는 공생 메커니즘”이다. 여기서 메커니즘이란 “기대치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유기체의 과정들” 혹은 “그때그때 고도로 유연하게 조형될 수 있는 유기체적 과정들”을 가리킨다.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9, 46-47쪽. 버틀러의 “젠더적 수행성” 개념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정체성에 합당한 몸짓과 행동양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성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성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섹슈얼리티는 성적 태도와 행동양식, 성적 대상의 선택, 성적 취향, 외모와 옷차림 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기대를 아우르는 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이자 일상적인 실천이다. 이에 관하여 주디스 버틀러, 김윤상 옮김,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성”의 담론적 한계들에 대하여』, 인간사랑, 2003, 41-48쪽 참조. 이하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로 축약함.

7)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 옮김, 『피비우스 피로서 몸』, 여이연, 2001, 140쪽. 또한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14쪽 참조.

형성된 성적 감성이며 사회적 관계의 신체화라고 정식화될 수 있다.⁸⁾

그렇다면 왜 섹슈얼리티인가? 이 물음은 21세기 고도로 산업화된 한국 사회 안에서 섹슈얼리티의 사회화가 삶의 다양한 영역들 곳곳에 침투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에 직면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⁹⁾ 그것은 성의 해방을 통해 사회적 삶을 정서적으로 재조직함으로써 인간해방의 가능성을 알리는 전조 현상인가, 아니면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편승한 성욕의 해방이 합리적으로 정당화 되어가는 과정인가? 달리 묻자면 그것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위한 해방이고, 어떤 약속을 함축하고 있는가? 만일 그것이 문제시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저 사회화 현상의 빛과 그림자를 성급하게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우(優)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총체적 기능연관,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자본주의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의 어떠한 현상도 이제 더 이상 흑백논리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

8) 자연/본성과 섹슈얼리티의 변증법에 관하여 Volkmar Sigusch, *Vom Trieb und von der Liebe*, Frankfurt am Main 1984, 57-73쪽 참조. 특히 69-73쪽 참조. 여기서 “감성(感性), sensibility” 개념은 일차적으로 눈, 코, 귀, 혀, 살갓을 통하여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리는 “감각적임(sensuousness)”과, 이차적으로 “관능(sensuality)”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감성(Sinnlichkeit)”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감성(Sinnlichkeit)은 “충동적인-특히 성적인-만족뿐만 아니라 감각을 보존하고 표상하는 혹은 느낌을 지각하는 인식능력”을 뜻한다. 허버트 마르크제, 김인환 옮김, 『에로스와 문명: 프로이트 이론의 철학적 연구』, 나남출판, 1999, 183쪽. 이하 『에로스와 문명』으로 축약하고 필요한 경우 번역을 수정함.

9) 한국 학계에서 섹슈얼리티를 다룬 최초의 논문은 1985년 발견된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성(性)의 “폭발 현상” 이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섹슈얼리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섹슈얼리티의 사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한국 학계에서 섹슈얼리티 연구의 대략적인 지형도에 관하여 박이은실, 『급진적 섹슈얼리티 연구 재/구축을 제안하며』, 『여/성이론』 25, 여이연, 2011, 65-106쪽 참조.

이다. 하나의 현상은 사회 전체 메커니즘과 결부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론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몇 가지 선행 이론들을 논의의 흐름에 적합하게 재구성하고, 또한 논의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면서 저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2절) 그리고 2012년 후반기에 전례 없는 세계적 성공을 거뒀던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 그려내는 섹슈얼리티를 분석함으로써 대중적 감성과 사회문화적 메커니즘의 공명 관계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약속하는 해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3절)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새로운 감성으로서 섹슈얼리티는 어떠한 것일 수 있는지를 스케치해 볼 것이다.(4절)

2. 섹슈얼리티와 사회적 관계

섹슈얼리티와 사회적 관계 사이에는 어떤 상호관계가 있을까? 푸코의 계보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미 고대 그리스 폴리스 안에서 “성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 사이의 동형성의 원칙”이 발견된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서,

성적 관계가 -언제나 능동성과 수동성이라는 양극성과 삽입의 행위-모델에서부터 출발하여 생각되는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복종시키는 자와 복종하는 자, 그리고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 사이의 관계와 동일한 유형으로 파악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쾌락의 실천 행위들은 경쟁적이고 위계화된 사회 계층들의 영역과 동일한 범주를 통해 성찰된다. 즉, 투쟁적 구조, 대립과 차별, 파트너 각자의 역할에 배당된 가치의 측면에서 둘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¹⁰⁾

10)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옮김, 『성의 歷史: 제2권 쾌락의 활용』, 나남출판 2003,

푸코의 연구는 폴리스의 정치적 맥락 안에서 상이한 신분, 예를 들어 자유인, 젊은 남자, 결혼한 여자, 창녀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의 위계질서가 성적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능동적인 자와 수동적인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 지배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 승자와 패자라는 비대칭적이고 대립적인 사회적 관계와 섹슈얼리티, 즉 성적 관계 사이에는 구조적 유비관계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서 성적 관계는 한 인간의 성적 욕구 이전에 폴리스 안에서 신분과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고, 거꾸로 사적 영역 안에서 성적 태도는 공적 영역 안에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반영한다. 이처럼 두 영역 사이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성적 관계는 단순히 한 인간의 쾌락 차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폴리스의 유지를 위한 도덕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렇다면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서양 사회에서 섹슈얼리티와 사회적 관계의 동형성은 어떻게 변주될까? 프롬의 정신분석학적 시각에서 볼 때, 섹슈얼리티는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조건과 변증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는 인간 본성과 사회적 조건 사이의 상호관계를 지적한다.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회 조직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해서 한쪽 극만을 말하는 셈이다.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극은 반대로 인간이 생활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인간 본성이다. 생리적 특성은 물론 심리적 특성을 가진 인간 실체를 알고, 살기 위해 숙달해야 하는 인간 생활이 처한 외부 조건의 성격과 인간 본성 사이의 상호조건을 음미할 때라야 비로소 사회적인 과정이 이해될 수 있다.¹¹⁾

248쪽.

11) 『건전한 사회』, 85-86쪽.

위에서 프롬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인간의 생리적이고 심리적 본성구조와 사회의 물질적 삶의 조건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간과하지 않을 때 사회적 과정 및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양자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는 사회적 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요소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셋 중에서 가장 우세한 요소는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적 요소다. 이와 같이 개인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본성구조, 즉 섹슈얼리티의 사회화 현상은 세 가지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

프롬의 분석을 우리의 논의에 맞게 약간의 변경을 가해보자. 섹슈얼리티는 개인의 본성구조 속에 각인된 일종의 사회적 유기체로서 기능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섹슈얼리티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경제적 구조의 효율적인 통제에 틀 속에서 반응하고 작동한다. 그것은 산업화된 문화가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것,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성적인 것의 이데올로기를 받아쓰기 한다. 또한 섹슈얼리티는 사회적 관계의 법칙, 프롬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적 성격(the social character)”¹²⁾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개인의 고유한 법칙, 즉 성격

12) 프롬이 주장하는 사회적 성격은 동물의 본능을 대신하는 사회적 유기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이 사회 혹은 타자와 관계 맺는 태도와 상응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성격은 비생산적인 정향·수용적 정향, 착취적 정향, 저축적 정향, 시장적 정향·과 생산적 정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건전한 사회』, 83-211쪽 참조. 이와 관련해서 라이히의 “성격 무장(charakterliche Panzerung)” 개념은 주목할 만하다. “6천년이나 된 낡은 가부장적·권위주의적 문화를 재생산하는 오늘날 인간의 성격구조는, **자신의 내적 본성에 대항하여 그리고 외적인 사회적 불행에 대항하여 성격적으로 무장Panzerung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 무장은 병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참을성만큼이나 고립, 구원요청, 권위에 대한 갈망, 책임에 대한 불안, 신비적인 열망, 성고통, 신경증적이고 무능력한 반항 등의 토대이다. 인간 스스로 살아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을 적대적으로 소외시켰다. 이러한 소외는 생물학적 기원을 갖는 것

을 형성한다.

푸코와 프롬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섹슈얼리티가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구조를 반영하고, 거꾸로 전자는 후자를 조건 짓는다는 것이다.¹³⁾ 섹슈얼리티는 2차 본성, 즉 사회적 감성이란 점에서 자연스럽게 체제 모방적이고 체제 순응적인 양상을 보인다. 달리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메커니즘의 법칙, 즉 교환원리는 섹슈얼리티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인의 가장 내적인 충동에까지 미끄러지듯이 파고든다.¹⁴⁾ 섹슈얼리티는 소비사회의 침범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와 그와 결부된 여성적 “섹슈얼리티의 매춘화”¹⁵⁾로 왜곡되어 현상한다.

이와 더불어 기든스에 따르면, “그 자체에 내재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행동의 질서들을 창출하는” “내부준거적인 체계”¹⁶⁾로서 현대 사회의

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기원을 갖는다. 가부장제가 발전하기 이전의 인간 역사 단계에는 이러한 소외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래로 자연스러운 노동과 활동의 즐거움을 대신하여 강제적 의무가 들어섰다. 인민 대중의 평균적인 [심리적] 구조는 무능력 과 삶에 대한 불안으로 빠져들었다. 그 결과 권위주의적 독재가 관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독재는 무책임성과 유아성 같은, 자신이 지배하는 인간들의 태도를 핑계삼아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대재앙은 이러한 삶소외의 결과이다.” 빌헬름 라이히, 윤수종 옮김, 『오르가즘의 기능: 도덕적 엄숙주의에 대한 오르가즘적 처방』, 그린비, 2005, 23~24쪽.

13) 일루즈는 2012년 전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에로 연애소설 3부작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현대의 섹슈얼리티와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구조 사이의 동형성을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예바 일루즈, 김희상 옮김, 『사랑은 왜 불안한가: 하드 코어 로맨스와 에로티즘의 사회학』, 돌베개, 2014, 특히 50쪽 이하 참조. 이하에서 『사랑은 왜 불안한가』로 약칭함.

14)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원리와 개인의 내적구조의 변증법적 관계에 관하여 김기성, 『자포자기를 만드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아도르노의 개인파산테제에 대한 분석』, 『범한철학』 제67집, 범한철학회, 2012, 215~239쪽. 특히 220~227쪽 참조.

15) 21세기 한국 사회의 일상 속에서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에 관하여 이희영, 『섹슈얼리티와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대중 종합여성지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86집, 한국사회사학회, 2010, 181~219쪽 참조.

“역전된 성찰성(the reverse reflexivity)”¹⁷⁾으로부터 비롯된 “성기적 섹슈얼리티(genital sexuality)”, 혹은 “강박적 섹슈얼리티(compulsive sexuality)”¹⁸⁾ 또한 발견된다.

성기적 섹슈얼리티는 마르쿠제에 따르면, 현대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노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주체의 신체가 리비도를 상실했다는 사실로부터 초래한다. 그는 프로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섹슈얼리티와 산업화된 노동 사이의 평행적 관계를 지적한다. 즉 “성충동의 성기적 조직은 자아 충동의 노동조직에 대응한다.”¹⁹⁾ 노동자가 오로지 생산성 증대의 강요 하에서 노동을 수행하면 할수록 그/그녀의 신체의 리비도는 더욱더 억압되고, 결국엔 “탈성화(die Desexualisierung)”²⁰⁾에 이르게 된다고 마르

16) 『친밀성의 구조변동』, 259쪽.

17) 기든스에 따르면, 역전된 성찰성은 후기 자본주의에 와서 자아의 성찰적 기획이 등장하게 되면서 동시에 수반되는 부정적 지표로서 일종의 “중독” 현상이다. 모든 중독은 외부 현실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고 현실 도피이며 자아의 자율성의 결여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역전된 성찰성의 한 가지 예로 공의존적 관계가 있다. 공의존적 관계란 한 사람이 어떤 강박성에 지배되는 행동을 하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묶여 있는 관계다. 왜냐하면 공의존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요구에 헌신하지 않고는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상대방의 행동과 욕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공의존적인 사람에게 중독은 “존재론적 안전감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친밀성의 구조변동』, 146-152쪽 참조.

18) 라이히는 현대성이 초래한 불행의 근원을 성기적 섹슈얼리티의 계발 혹은 좌절에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성기적 섹슈얼리티는 불안정한 삶의 변화를 견디기 위한 방어기제인 성격으로 인한 자아의 경직화, 신체에 대한 성찰적 통제,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의 상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기든스는 강박적 섹슈얼리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좌절된 현실, 혹은 특히 이러한 현실을 대표하는 개인을 동일시함으로써 성격 무장은 의미 있는 내용을 갖게 된다. 자신을 좌절시키는 타자들로 인해 발생된 공격성은 불안감을 낳으며, 그것은 다시 자아를 적대시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에너지를 표현할 길이 차단되고 금지되어 버린다. 이렇게 차단된 에너지는 성 충동을 회피하고 가로막게 되며, 결국 성 충동은 강박적인 방식으로만 표면화되기에 이른다.” 『친밀성의 구조변동』, 242-243쪽.

19) 『에로스야 문명』, 212쪽.

20) 앞의 책, 199쪽. 마르쿠제의 비판은 요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무성에

쿠제는 비판한다. 노동의 기율은 신체가 탈에로틱화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연사의 변증법적 관점에서 볼 때,²¹⁾ 성기적 섹슈얼리티와 강박적 섹슈얼리티는 자연/본성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물로 대하는 도구적 이성과 일란성 쌍둥이다.

성기적 섹슈얼리티와는 약간 다르게 강박적 섹슈얼리티, 혹은 성행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섹스중독’ 현상은 기든스의 시각에서 볼 때, 현대성의 특징과 맞물려 있다. 그것은 자유로운 성행위의 해방과 더불어 성적 정체성이 자아의 서사에서 핵심을 차지하게 된 경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파악될 수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자아의 서사를 구성할 능력이 결여된 개인, 달리 말해서 자율성이 결여된, 현실도피적 개인에게서 발견되는 현대성의 그림자라는 것이다.

마르크제가 볼 때, 강박적 섹슈얼리티는 효율적으로 통제된 체제 안에서 과도하게 착취되고 억압된 성욕의 해방일 뿐이다. 이러한 해방은 성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는 체제를 전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체제를 강박적으로 내면화하면서 재생산한다. “체제 안에서 풀어진 성도덕은 그 자체 체제에 봉사한다.”²²⁾ 예전과는 달리 취학 전

(Asexuality)” 현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한 가지 해석을 제공한다. 앤서니 보게트, 임옥희 옮김, 『무성애를 말하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그리고 사랑이 없는 무성애, 다시 쓰는 성의 심리학』, 레디셋고, 2013 참조.

21) 자연사의 변증법에 관하여 설현영, 『아도르노의 역사철학 연구』, 『철학연구』 49권 0호, 철학연구회, 2000, 109-132쪽 참조. 또한 김기성, 『비판으로서 형이상학: 아도르노의 신체매개적 비판원리에 관하여』, 『시대와 철학』 제23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2, 16-20쪽 참조.

22) 『에로스야 문명』, 103쪽. 이와 관련해서 마르크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도 안에서 성욕을 해방하는 과정은 억압된 성욕을 폭발시킨다. 리비도는 억압의 표지를 계속해서 지니고 있으며, 문명의 역사에 잘 알려져 있는 무서운 형태로 자신을 표현한다. 절망적인 대중, 특권계급, 굶주린 용병(傭兵)의 떼, 형무소와 집단수용소의 간수들이 벌이는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광란(狂亂)을 보라. 그러한 성욕의 해방은 견딜 수 없는 좌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필요한 출구를 제공한다. 그것은 본능적 억제의 근거

아동의 정서적 자아마저 초가족적인 대리자, 즉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을 중계하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화 된다.²³⁾

성기적 섹슈얼리티와 강박적 섹슈얼리티는 신체를 정신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쾌락의 객체 혹은 수단으로 다루지만, 바로 그 신체를 자신의 원초적 토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종류의 섹슈얼리티로 전환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 메커니즘의 보편적 운동법칙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가장 무질서한, 따라서 특수하고 개별적인 충동의 계기로 인해 그러한 운동법칙에 어긋난 일탈 혹은 거기에 맞서는 저항의 잠재력을 지닌 섹슈얼리티 또한 가능하다. 여기서 특수하고 개별적인 충동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주관적 충동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층위 “저변에서 흐르고 있는 집단적인 것(ein kollektiver Unterstrom)”²⁴⁾, 혹은 역사적으로 유전된 “집단적 존재(das kollektive Wesen)” 혹은 “전체주체(ein Gesamtsubjekt)”²⁵⁾의 기저로부터 분출된 충동이다. 다시 말해서 섹슈얼리티는 개인적인 감성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감성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도로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 체제의 억압에 대한 해방의 열정, 가부장적인 젠더 역할에 대한 여성의 저항, 새로운 감성의 도덕적

를 약화하기는커녕 강화한다. 성욕의 해방은 때때로 억압적인 제도를 버티는 기둥으로 사용된다.” 『에로스와 문명』, 201쪽.

23) 요즘 한국 사회에서 “성조숙증” 아동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성조숙증으로 확진돼 진료 받은 아동들 수는 2004년 194명에서 2010년 3686명으로 19배가 늘어났다. 성조숙증은 보통 사춘기 때 나타나는 2차 성징이 만 8-9살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구식 식습관, 비만,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인터넷 등을 통한 성적 자극 노출 등이 꼽힌다. 김양중, 『혹시 우리아이 성조숙증? '뇌두면 성장판 닫혀요』, 『한겨레 신문』, 2012년 6월 18일 기사.

24) Th. W. Adorno, *Noten zur Literatur*, Hrsg. von Rolf Tiedemann, *Gesammelte Schriften* Bd. 11, Frankfurt am Main 1974, 58쪽. 이하 NL로 축약함. 또한 ÄT, 133쪽 참조.

25) Th. W. Adorno, *Ästhetische Theorie*, Hrsg. von Gretel Adorno und Rolf Tiedemann, *Gesammelte Schriften* Bd. 7, Frankfurt am Main 1972, 250쪽, 359쪽. 이하에서 ÄT로 축약함.

몸짓,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는 삶의 충동 등과 같이 미학적 진리의 기준에 따르는 새로운 감성의 체제 전복적이고 해방적인 잠재력 또한 품고 있다.²⁶⁾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섹슈얼리티는 감성의 층위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계, 심지어 계급적인 관계 또한 엿볼 수 있는 매개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2012년 후반기에 전례 없는 세계적 성공을 거뒀던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 그려내는 섹슈얼리티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대중매체가 재현하는 섹슈얼리티는 대중적 감성과 사회문화적 메커니즘 사이의 공명 관계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약속하는 해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분석도구가 되기 때문이다.²⁷⁾

3. 〈강남스타일〉의 섹슈얼리티와 대중의 감성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 뜻밖의 세계적 성공과 함께 ‘국가 대표 대중가요’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고 초등학생들까지 ‘말춤’을 따라

26) 여기서 미학적 진리의 기준은 예술작품의 심미적 형식법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심미적 형식법칙과 관련하여 김기성, 『심미적 경험으로서 사랑: 사랑의 불가능성으로부터 약속된 가능성에 관하여』, 『인간·환경·미래』 제12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4, 106~112쪽 참조.

27) 일루즈에 따르면, 대중적 문화상품은 “아직 분명한 표현을 찾아내지 못한 사회경험에 그것을 담아낼 형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삼는다.” 따라서 “어떤 사회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특정한 문제를 바라보는 두려움, 함께 흥분하며 설레는 상상력 등을 이야기 속에 녹여낼 때 베스트셀러의 바탕이 마련된다.” 『사랑은 왜 불안한가』, 31쪽.

하는 등 모든 계층의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게 되면서 이 뮤직비디오의 노래와 영상이 섹슈얼리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잊혀진 감이 있다. 이듬해 싸이가 〈강남스타일〉의 후속작으로 공들여 제작한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발표된 이후에야 대중들은 싸이가 이미 10여 년 전의 데뷔 시절부터 한국 대중가수들 가운데 성적인 문제를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해온 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²⁸⁾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세대나 계층을 불문하고 폭넓게 수용되었다는 점, 나아가 대중적 수용의 과정에서 텍스트 속의 성적인 함의가 가려지거나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오히려 성상품화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일부 걸그룹의 세미 포르노 뮤직비디오보다 섹슈얼리티 논의와 관련하여 더 많은 참조점을 던져 줄 수 있다. 〈강남스타일〉은 요즘 문화적 맥락에서 한국 대중들이 불편한 감정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의 일정한 허용수준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허용수준의 임계점은 현재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 듯하다.

사실상 〈강남스타일〉에서 크고 작은 성적 코드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3분여의 짧은 재생 시간 동안 걸그룹 ‘포미닛’의 멤버인 현아가 지하철 객실 안을 배경으로 이른바 ‘봉춤’을 추는 장면을 비롯하여 요가를 하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클로즈업 하는 등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부각시키는 장면들이 적지 않다. 코믹하게 처

28)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이 발표된 직후 다소 극단적인 반응이지만, 동아대 정희준 교수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싸이의 ‘포르노 한류’, 자랑스럽습니까?』(2013년 4월 18일 기사)라는 제목의 비판적 칼럼을 게재해 화제가 되었다. 이후 싸이의 편에 선 여러 변호 논리들도 있었지만, 싸이 자신이 어린이 팬들을 향해 발언하는 형식으로 “뮤직비디오의 선정성”에 대해 공식 사과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싸이 ‘젠틀맨’ 뮤비 덜 건전해 어린이들에게 미안… 좋은 작품 다시 보여줄 것.” 『스포츠 동아』, 2013년 4월 25일 기사 참조.

리된 골반을 흔드는 춤(속칭 ‘저질 춤’)이나 해외에서까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말춤 자체가 성적인 은유를 강하게 드러낸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비트가 강한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젊은 남녀의 사교 장소인 홍대 앞이나 강남의 클럽 분위기를 연상시키고 노래 가사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짝짓기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편의 성적 농담과 같은 음악과 동영상이 어떻게 그토록 열광적인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대중적 성공을 거둔 예술작품이나 문화 상품은 동시대 대중의 욕망에 부응하는 크고 작은 요소를 갖추기 마련이다. 일루즈가 말하듯 “암호화한 형태로 사회모순을 주제로 삼고 있는 텍스트가 대중적 인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²⁹⁾ 〈강남스타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강남스타일〉이 국내외에서 심상치 않은 반향을 일으키던 초기에만 해도 지식인들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깝거나 냉소적인 면도 보였다.³⁰⁾

29) 『사랑은 왜 불안한가』, 36쪽. [] 부분은 번역이 수정됨.

30) 예컨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등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지만 아직 빌보드 차트의 정상권에 진입하지는 못했던 2012년 8월 초에 한겨레신문에 실린 박권일의 칼럼이 대표적이다. 그는 〈강남스타일〉이 “강남에 바치는 마지막 찬가”로서 “강남의 몰락”이 가시화되는 당시의 상황(이는 물론 경제학자의 다소 주관적인 진단으로 보이지만)을 배경으로 대중적 친화력을 획득했다고 분석한다. 그러한 경제적 배경이 없었다면 이 노래는 그저 “재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국 사회의 병적인 강남 선망은 세련된 문화나 우아한 전통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8학군, 아파트, 주상복합의 ‘물질주의 삼각형’이 빚어낸 마법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강남 타워팰리스의 집값이 반토막 나고 강남 주요 아파트들의 가격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강남 스타일의 종언’이 임박했다. 국민의 대오각성이 아니라 거품의 붕괴에 의해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2012년 발표됨으로써 의도치 않게 아이러니를 획득한다. 강남에 바치는 마지막 찬가처럼 들리는 까닭이다. 2006년 노래였다면 그냥 ‘재수 없었을 것이다.’ 박권일, 『강남 스타일의 종언』, 『한겨레신문』, 2012년 8월 7일 기사, 30면.

하지만 세계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인기 순위 차트인 빌보드 차트의 정상을 눈앞에 두던 2012년 9월에 이르면 진보 성향 언론의 사설에서조차 〈강남스타일〉의 활약상을 긍정적으로 다루었을 만큼 이 뮤직비디오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읽혀졌다.

때 빼고 광 내지 않고, 날것 그대로 드러낸 ‘싼티’의 성공은, 명절마저 버거운 이들의 시름을 잊게 해준다. 하지만 이런 정서보다 더 강조해야 할 것은 싹 것의 당당함이다. 첫 장면부터 10차로 건널목을 말춤 추며 씩씩하게 건너가는 뮤직비디오는 세상의 체면과 관습 따위에 동침을 날린다. 지중해변이라도 되는 양 동네 놀이터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목마에 올라 지상 최고의 승마 황홀경에 빠지고, 대중목욕탕에서 수영하고, 쓰레기장이건 둔치건 가리지 않고 논다. 그 당당함이 사람들을 무장해제해 버린다. 즐기는 것이야 각자 스타일이지, 규범이나 눈치를 볼 일은 아니다.³¹⁾

위와 같은 분석은 한국의 지적 담론 장에서 이루어진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대한 긍정적 해석의 한 가지 전형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정당화되는 지점은 뮤직비디오 텍스트 안이라기보다는 텍스트 바깥이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전례 없는 대중적 확산 과정, 나아가 세계적 확산 과정은 헨리 젠킨스가 말하는 “컨버전스 컬처”, 곧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질적인 미디어들이 융합되는 최근 대중문화에서의 거시적인 지각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때 컨버전스 현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미디어를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 할 때,³²⁾ 〈강남스타일〉이야말로 이러

31) “강남스타일, ‘내 스타일’”, 『한겨레신문』 2012년 9월 28일 사설의 일부.

32) “컨버전스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난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만이 아니다. 우리의 삶, 관계, 기억, 환상, 욕망도 미디어 채널들을 건너다닌다.” 헨리 젠킨스, 김정희원·김동신 옮김,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2008, 38쪽.

한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예시하는 최근의 대중문화 텍스트라 할 만하다. 〈강남스타일〉의 수용자들은 뮤직비디오를 단순히 보고 듣거나 싸이의 ‘말춤’을 따라 추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 그 자체를 자신의 일상으로 받아들인 뒤 스스로 변용하여 재생산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는 〈강남스타일〉을 보고 듣는 이들 자신의 코멘트와 정서적 반응을 담은 ‘리액션 비디오’와 각자 스타일을 패러디하여 찍은 수많은 ‘밈 비디오(meme video)’, 그리고 ‘플래시몹(flash mob)’과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과 이를 촬영한 동영상들로 넘쳐났다. 이러한 동영상들은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로지르며 대중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소통되었다. 이러한 대중들의 자발적 문화 재생산 과정에서 형성된 유쾌한 사회적 관계와 전례 없는 대중적 놀이의 실천적 확산은 〈강남스타일〉의 텍스트 자체에 담긴 성적 함의와 맞물리면서 일상에 지쳐 경직된 대중들의 신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잠들어 있던 성감대를 일깨우는 듯해 보였다. 결국 〈강남스타일〉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해방적 놀이를 찾던 대중들의 욕망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강남스타일〉의 폭발적 인기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해 보인다. 현대의 대중들은 대중문화 텍스트를 통해 ‘현실 너머’를 꿈꾸는 것만은 아니다. 적어도 성공적인 텍스트는 현실의 논리 그 자체를 내재하고 있으며, 특유의 상상력으로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모순을 여실히 폭로한다. 〈강남스타일〉의 섹슈얼리티가 문제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좀 더 심층적인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중독성이 강한 음악과 최면에 걸린 듯 따라하게 되는 말춤의 효과다. 우선

〈강남스타일〉의 음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케이팝(K-pop) 일반과 공유하고 있는 이 뮤직비디오의 음악적 형식을 따져보아야 한다. 〈강남스타일〉을 비롯한 케이팝 댄스음악은 ‘훅송(hook song)’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어감이 담긴 용어로 수식되곤 한다. 훅송은 공식화된 장르 명칭이라기보다는 대중음악 저널리즘에서 기억하기 쉬운 인상적 프레이즈나 후렴구를 가리켜 써왔던 ‘훅(hook)’이라는 용어와 ‘송(song)’을 결합시킨 임기응변적인 용어다.³³⁾ 훅송의 전형적 양식은 서구 선진국보다도 빠르게 음반 산업이 몰락하고 일찌감치 디지털 음원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 한국 음악 산업의 치열한 경쟁적 환경에서 비롯되었다.³⁴⁾ 요컨대 훅송은 인상적인 짧은 프레이즈나 후렴구를 노래 전체로 확장했음을 뜻하는데, 이는 케이팝에 대한 표면적인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케이팝의 양식적 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미국의 초기 대중음악에서부터 자주 쓰였던 관습화된 ‘버스앤코러스(verse and chorus)’ 형식³⁵⁾은 서술적인 ‘절(verse)’과 상대적으로 더 선율적인 ‘후렴(chorus)’의 2부분으로 나뉘며, 훅에 해당하는 인상적인 프레

33) 대중음악에서 쓰이는 ‘훅’이라는 개념에 관련해서는, 이 개념을 좀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비평적 개념으로 확장시켜 다루어보고자 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서정환, 『대중음악의 훅(hook)에 관한 정의와 재해석』, 『음악학』 21권, 한국음악학학회, 2011 참조.

34) 20세기말 IMF 경제위기를 겪고 연이어 넵스터와 소리바다와 같은 P2P 파일 공유사이트에 의해서 큰 타격을 받은 한국의 음반산업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모바일 통신회사 주도의 디지털 음원 산업에 음악 산업의 헤게모니를 내주었다. 이후로 모바일 환경과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음악 판매는 30초에서 1분의 ‘미리듣기’에서 음악 소비자의 호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이것이 음악의 도입부에서부터 미리 후렴부의 훅을 제시하는 한국적 훅송의 탄생 배경이다.

35) 대중음악의 형식은 ‘버스앤코러스’ 형식 외에도 A(A)BA 형식, 블루스 형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버스앤코러스’ 형식 또한 ‘브리지(bridge)’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지만 대부분의 상업적 대중음악 형식은 반복구(후렴)와 서술적인 절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버스앤코러스’ 형식이 가장 주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르는 후자인 후렴 부분에 장착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비판적 해석의 층위에서 절 부분은 개인의 자율성을, 후렴 부분은 집단적 감성을 재현하며, 양자의 이음새 없는 결합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총체성을 창출한다.³⁶⁾ 그런데 흑송은 후자(후렴)의 형식적 비중을 최대한으로 높여 전자(절)를 흡수 통합하는 양식이다. 결국 흑송에서 원자화된 개인과 집단 사이의 화해의 가상을 창출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이와 같은 흑송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노래의 형식을 가사를 통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절(verse)	②삽입부(bridge)	③후렴(chorus)
낮에는 파사로운 인간적 인 여자/ 커피 한잔의 여 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 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 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 전 있는 여자 (이하 생략)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 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아름다워 사랑스러 워/ 그래 너 hey 그래 바 로 너 hey/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 타일/ 오오오오 오빤 강 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 오오오 오빤 강남스타일 / Eh- Sexy Lady/ 오오오 오 오빤 강남스타일/ Eh- Sexy Lady 오오오오

〈강남스타일〉에서 가장 강력한 흑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목에도 명시되어 있는 “오빤 강남스타일” 하는 부분이며 이 흑은 ③(후렴) 부분에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 흑을 뒷받침하는 반주의 베이스 진행이나 화음 진행 -사실상 화음 진행이랄 것도 없이 원 코드의 선법적 화성을 쓰고 있다-은 ①(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 노래에서 ①(절)과 ③(후렴)

36) 대중음악의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해서 일찍이 아도르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키치에서의 후렴은 여전히 음악의 집단적 위력에 대한 기억을 유지한다. 반면 설명적인 노래 가사들은 개인을 담아내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은 사실상 저 집단으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다. 그렇게 유행가의 형식은 총체성을 만들어내려 한다.” Th. W. Adorno, “Schlageranalysen”(1929), in: ders., *Musikalische Schriften V*, Hrsg. von Rolf Tiedemann u. Klaus Schultz, Gesammelte Schriften Bd. 18, 1984, 780~781쪽.

은 음악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후렴의 효율적 반복을 통한 절과 후렴의 합리화된 양식적 통합이야말로 흑송이라 일컬어지는 케이팝 댄스음악 일반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양식적 통합은 일종의 신화적 운명처럼 현상하는, 맹목적인 자연연관의 알레고리다.

이 점은 케이팝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안무와도 긴밀히 연관된다. 흑송의 기본 도식에 따라 절 부분에서 각 멤버들이 교대로 짧게 독창하면서 각각의 독무(獨舞)를 보여주다가 후렴 부분에서는 전 멤버가 일치된 군무(群舞)를 추는데, 주요 후이 포함된 후렴이 절 부분에서까지 효과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독무보다는 군무가 곡 전체를 지배하도록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다. 여기서 〈강남스타일〉의 안무가 보통의 케이팝 댄스음악의 안무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군무의 기본 동작이 극단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과 독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강남스타일〉에서 후렴은 일반적인 케이팝 흑송에서 후렴의 의미를 넘어서 절대화된 반복의 의미를 가지며, 일사불란한 말춤 군무를 불러내는 음악적 정언 명령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수행되는 말춤이 에로스적인 놀이가 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복고주의와 성적 함의가 결합된 이 단순한 춤은 오히려 기든스가 지적한 “강박적 섹슈얼리티”를 구현한다.

〈강남스타일〉의 말춤은 짝짓기와 쾌락의 대상을 찾아나서는 자발적 이동의 서사와 자율적 선택의 서사를 암시하지만, 하체와 무릎을 굽힌 기마 자세를 통해 무의식적 순응의 의미를 드러내며 양 손을 안쪽으로 모으는 기본 동작 탓에 상체를 통한 표현의 자유 또한 제한되어 있다.³⁷⁾

37) 무용학자 최미연은 〈강남스타일〉의 말춤이 유행한 원인 가운데 한 가지를 이 춤동작에 함의된 ‘순응’과 ‘보수성’에서 찾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말춤이 대중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순응의 성격과 보수성이 춤으로 표현되어 무릎을 굽힌 상태, 즉 기마자세를 기본으로 하

이 춤 동작은 “지금부터 갈 데까지 가볼까!”라며 오르기즘을 연상시키는 사이의 열 오른 선동적 구호가 무색하리만큼 사실상 차분하고 냉정하다. 이러한 말춤의 동작을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노동과 관련시키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여기서 주체는 일견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 듯하지만, 억압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의 제한된 영역에 갇혀 있고 치열한 경쟁의 논리가 요구하고 강제하는 모든 것에 순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이의 말춤은 한편으로 ‘최소 투자 최대 이윤’이라는 효율성의 논리를 음악적으로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놀이와 섹슈얼리티의 가상공간을 부유하다가 마침내 노동하는 자본주의적 현실의 공간으로 안착한다. 그것은 자유로운 실존의 공간, 즉 현존재에게 열려져 있는 세계를 미리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계를 향한 동경마저 단념케 만든다. 이것이 〈강남스타일〉의 엔딩 시퀀스, 말춤 추는 군중의 스펙터클로 암호화된 신자유주의적 개인의 실상이다.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이렇듯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논리가 일상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 즉 “차가운 친밀성”³⁸⁾이 깊숙이 삼투된 인간관계, 그리고 그와 동일한 논리에 따라 노동과 쾌락을 관리하고 재생산하는 자본주의적 신체를 가시화한다. **경제적인 것은 관능적이고, 관능적인 것은 경제적이다.** 바로 이러한 암묵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강남스타일〉의 섹슈얼리티는 ‘강남’이라는 한국 사회의 첨예한 욕망의

는 말춤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제2의 싸이열풍이라고 불리우며 미국, 영국 등 세계적인 메스컴에서 호평을 받으며 떠오르는 크레용팝의 ‘빠빠빠’의 포인트 안무인 ‘직렬 5기통 엔진춤’도 다섯 명의 소녀가 손을 고정시킨 채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형태로 ‘순응’의 서사가 주가 되고 있다.” 최미연, 『강남스타일 ‘말춤’의 무용서사를 통해 본 사회문화적 지형』,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71권 5호, 대한무용학회, 151쪽.

38) 에바 일루즈, 김정아 옮김, 『감정 자본주의: 자본은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돌베개, 2010. 이 책의 원제목이 “차가운 친밀성(Cold Intimacies)”이다.

코드를 통해 대중의 감성과 공명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그것은 텍스트 밖에서도 전혀 없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성공신화로 자리매김하면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애국주의’와 결합될 수 있었다. 〈강남스타일〉 속 싸이의 페르소나는 강남을 둘러싼 한국 대중의 갈등과 결핍, 그리고 그로부터 유발된 억압된 욕망을 성적 이미지로 환치하여 해소시켜 준다. 〈강남스타일〉의 상상력은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독특한 즐거움을 준다. 이 인위적인 상상력은 “갈등과 결핍을 현실의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³⁹⁾며, 일상의 억압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장치를 자동재생하면서 내밀히 존재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놀 땀 노는” 쿨한 여자와 남자의 짝짓기 환상이 담긴 〈강남스타일〉의 섹슈얼리티는 말하자면 성적 유희가 결들여진 이 시대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자기계발서에 다름 아니다. 사회경제적 갈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성적 관계의 불안 속에 있는 한국의 대중들이 이 텍스트에 열광적 반응을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4. 새로운 감성으로서 섹슈얼리티

우리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섹슈얼리티의 모순과 역설을 발견한다. 즉, 산업화된 대중문화가 주조하고 유포하는 섹슈얼리티는 경향적으로 볼 때, 도구적 이성의 전횡에 맞서 저항하면서 자발적 상상력의 힘을 일깨우는 감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감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의 운동법칙을 반복강화하면서 섹슈얼리티의 원초적 토대인 신체를 사물화 하는

39) 『사랑은 왜 불안한가』, 40쪽.

모순을 보여준다.⁴⁰⁾ 달리 말해서 저 운동법칙이 변화하기 위한 전제이자 결과인 인간적인 감성을 효율적으로 억압하는 메커니즘의 틀 내에서 섹슈얼리티는 권위적인 성도덕과 사회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들을 바로 그 메커니즘에 다시 종속시키는 역설을 드러낸다. <강남스타일>의 효율적 섹슈얼리티는 이러한 모순과 역설을 위선적인 애국주의의 깃발 아래 은폐한다.

그렇다면 성기적 섹슈얼리티, 혹은 강박적 섹슈얼리티와는 달리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해방적 놀이를 수행하는 섹슈얼리티는 어떤 형상을 지니고 있을까? 억압과 착취 그리고 폭력이 합리화된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의 비합리성과 사회적 관계의 가식적 퍼포먼스를 적나라하게 발가벗기는 에로스적 놀이를 통해서 인간해방을 약속하는 섹슈얼리티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든스와 마르쿠제의 선행 작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기든스는 자아의 성찰성을 섹슈얼리티와 결합시킴으로써 개인적 삶의 자율성과 사회적 삶의 정서적 재조직, 사적 영역에서 민주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때 그는 “조형적 섹슈얼리티(plastic sexuality)” 혹은 문화적으로 “세련된 에로티시즘(cultivated eroticism)”-관능의 기술(ars erotica)-을 “자아 탐색과 도덕적 형성이 이루어지는 장소”⁴¹⁾이자 “정치 투쟁의 영역이며 해방의 매개체”⁴²⁾라고 제시한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마르쿠제는 문화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연동하는 본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서 “다형적 섹슈얼리티(polymorphe Sexualität)”⁴³⁾ 혹은 “에로

40) 산업화된 문화 속에서 사물화된 신체에 관하여 김기성, 『비판으로서 도덕: 분노와 저항의 등인으로서 도덕적 경험에 관하여』, 『범한철학』 제70집, 범한철학회, 2013, 315~340쪽. 특히 326~329쪽 참조.

41) 『친밀성의 구조변동』, 220쪽.

42) 『친밀성의 구조변동』, 268쪽.

스적 충동” 속에 자신의 근원을 지니는 “유기체의 소질(eine Anlage des Organismus)”⁴⁴⁾로서 도덕을 제안한다. 이처럼 양자는 사회문화적 메커니즘의 변화를 추동하는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도덕성을 섹슈얼리티와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기든스가 제시하는 섹슈얼리티, 즉 “성적 민주주의”⁴⁵⁾를 목표로 하는 조형적 섹슈얼리티는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합의와 대칭성 그리고 상호협력을 위한 관계를 맺고 끊는 계약이론 “순수한 관계”-을 모델로 한다는 점에서, 마르쿠제와 입장 차이를 보인다. 기든스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 두 개인의 자율성, 즉 “협상, 소통 그리고 호혜성에 기초하는 친밀성”⁴⁶⁾과 “신체의 감각을 통해 표현되는 감정을 의사소통이라는 맥락에서 가꾸어 가는”, “쾌락을 주고받는 기술”⁴⁷⁾로서 에로티시즘을 강조한다. 하지만 합리적 계산과 결합된 에로티시즘은 오히려 사적 영역을 규범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 특히 비합리적인 낭만을 꿈꾸는 의식을 불행한 의식으로 내몰 가능성과 섹스로부터 낭만적 감정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일루즈의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⁴⁸⁾ 다시 말해서 쾌락과 만족의 최대치를 목표로 하는 정서적

43) 『에로스와 문명』, 200쪽.

44) 허버트 마르쿠제, 김택 옮김, 『해방론』, 울력, 2004, 24~25쪽.

45) 『친밀성의 구조변동』, 269쪽.

46) 에바 일루즈, 김희상 옮김,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의 사회학』, 돌베개, 2013, 317쪽. 이하 『사랑은 왜 아픈가』로 축약하고, 필요한 경우 번역을 수정함.

47) 『친밀성의 구조변동』, 294쪽.

48) 일루즈는 쾌락과 만족의 최대치를 목표로 하는 심리적 “자기의 공리주의적 프로젝트”를 비판하면서 에로틱한 경험의 형식을 “깊은 침잠과 자기포기”라고 주장했던 리처드 슈스터만의 견해를 소개한다. “섹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의미에서 충만케 하고 흡수하는 활동, 주변의 그 어떤 방해로부터 벗어나 활동일 뿐만 아니라, 이와 맞물려 일어나는 기분 좋은 느낌들의 형식으로써 향유될 수 있다. 섹스는 자신의 고유한 주관성을 향유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어떤 객체(이 객체는 대개 또 다른 인간의 주체다)로 지향하고 있는 현상학적 범위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그 객체는 경험을 구

이고 심리학적 공리주의 프로젝트와 맞물리는 조형적 섹슈얼리티는 자본주의적 사회체제에 덜 위협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게 세련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합류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것은 섹슈얼리티의 자연사적 변증법을 간과함으로써 비롯된 결과다.

이에 비해서 마르크제가 주장하는 다형적 섹슈얼리티는 정신분석학적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문명의 터부를 어겼을 때 수반되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외디푸스 콤플렉스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사회적 관계의 도덕은 성적 관계의 도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전제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우연히 형성된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삶의 충동을 억압하는 메커니즘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도덕의 자연사적 변증법을 지닌다. 전자가 체제 순응적 섹슈얼리티의 도덕이라면, 후자는 체제 전복적 섹슈얼리티의 도덕이다. 하지만 양자는 이분법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 마르크제는 어떤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윤리적 행위 이전에,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도덕

조화하고, 경험의 질을 형상화하고 경험에 중요한 의미차원들을 부여한다 [...]. 섹스 행위는 자신의 몸과 정신, 그리고 섹스파트너의 몸과 정신을 헤아리는 일을 매개해주는 일종의 인지적 경험을 묘사한다. 이러한 경험, 즉 더할 수 없이 만족스러운 충족을 향해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서 체험되는 경험의 부분은 정합성뿐만 아니라 완전성으로서 전체성이다. 성경험은 일상경험의 따분한 흐름으로부터 확연히 벗어나는 경험이고, 아주 폭넓은 정념의 스펙트럼을 포함하며, 이 가운데 어떤 정념의 강렬함은 그 무엇도 능가할 수 없다. 따라서 성경험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사태연관 속에서 정신적으로 파악하는 행위의 계기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포기와 침잠의 계기를 환기시킨다.” 『사랑은 왜 아픈가』, 363~364쪽.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아도르노는 심미적 경험과 성적 경험의 유사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미적 경험은 성적 경험,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것의 절정과 유사하다. 마치 이러한 경험의 절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변하는 것처럼, 즉 절정 속에서 경직된 것과 가장 생명력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적 경험은 심미적 경험의 신체적 원이미지(das leibhafte Urbild)다.” ÄT, 263쪽.

의식 표명 이전에 저 살아 있는 신체를 지닌 “유기체의 소질”로서 도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충동심리학적 토대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인간적 본성»에 형식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의 충동구조의 심층부에까지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도덕의 변화는 «생물학적» 차원으로까지 «내려가서» 유기체의 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일단 특정한 도덕이 사회적 태도의 규범으로 확립된다면, 그러한 도덕은 내면화될 뿐만 아니라 «유기체»의 태도의 규범으로서도 작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유기체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진 도덕과 일치해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거나 아니면 거기에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게 된다. 이처럼 도덕은 살아 있는 세포로서 각각의 사회에서 유기체의 기능을 촉진하거나 방해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사회는, 의식과 이데올로기의 이편에서, 그 구성원들의 «본성»의 일부로서 태도전형(態度典型)과 소망을 지속적으로 재-창조한다. 만일 반란이 이러한 «2차 본성» 안으로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어떤 사회적 변화는 «불완전한» 채로 머물거나, 혹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다.⁴⁹⁾

위에서 마르쿠제는 인간의 충동구조가 변화되어야만, 달리 말해서 개별적 유기체의 “도덕적 척추(moralisches Rückgrat)”⁵⁰⁾가 갖추어져야만,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도덕적 척추는 무의식적 층위에서 “잔인함과 난폭함, 그리고 추함에 반대하는 본능적인 방어벽”⁵¹⁾과도 같은 성향체계인 “아비투스(Habitus)”⁵²⁾로서 이해

49) 『해방론』, 25쪽.

50) 『해방론』, 126쪽. 번역본에는 “도덕적 기질”로 되어 있다.

51) 『해방론』, 37쪽.

52) 부르디외의 핵심개념 가운데 하나인 아비투스는 “의식적으로 목표를 겨냥하거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을 명시적으로 통제하지 않고서도, 객관적으로 그 목표에 맞추어질 수 있는 실천과 표상들을 조직하고 발생시키는 원칙으로서 기능하도록 구조화된 구조들이다.” 아비투스는 두 가지 구성요소, 즉 “일상의 행위를 결정하는 도덕의 의식적이지 않은 내면화된 형식”으로서 에토스(ethos)와, “육체의 성향, 육체와의 관계로서 개인의 역사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개인에게 내면화된 태도”로서

될 수 있다. 그것은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는 표준화된 지각을 넘어서는 “심미적 경험(ästhetische Erfahrung)”, 즉 “사물들에게서 사물들 이상의 것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정신이 세계로부터도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아직 겪어 본 적이 없는 어떤 것에 관한 경험”⁵³⁾의 토대다. 이러한 심미적 경험은 오로지 성기 중심적이고 강박적인 쾌락이 아닌, 다형적이고 에로스적인 쾌락을 생산하면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거부하는 새로운 감성에 자양분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에로스적 놀이충동이 억압된 신체가 아닌, 이러한 놀이충동이 꿈틀대는 신체의 살아 있는 세포가 다름 아닌 마르쿠제가 주장하는 다형적 섹슈얼리티의 도덕이자, 그 자체로 인간해방을 향한 실천으로서 새로운 감성이다.

새로운 감성은 폭력과 착취에 **맞서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과 형식을 향한 투쟁 속에서 생성된다. 그것은 전체 체제와 이러한 체제의 도덕 및 문화에 대한 부정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가난과 궁핍의 폐지가 현실이 되는 어떤 사회, 즉 그 안에서는 감각적인 것, 유희적인 것, 여유가 실존의 **형식**이 되고 그와 함께 사회의 형식 자체가 되는 사회를 건설할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함축하고 있다.⁵⁴⁾

마르쿠제가 말하는 새로운 감성의 저항은 결코 논증적 이성과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반성 이전에 살아 있는 신체의 “도덕적 신경감응”⁵⁵⁾으로부터 비롯된 실천이다. 이러한 실천은 부자유스러운 사회의 억압적인 만족이 아닌 이성과 감성이

엑시스(hexis)로 이루어져 있다. 아비투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파트리스 보네위츠, 문경자 옮김, 『부르디외의 사회학 입문』, 동문선, 2000, 88~106쪽 참조. 여기서는 89~90쪽, 53) ÄT, 488쪽과 204~205쪽. 자기형성과 사회변화의 계기로서 심미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문광훈, 『숨은 조화 - 심미적 경험의 파장』, 아트북스, 2006 참조.

54) 『해방론』, 45~46쪽.

55) “도덕적 신경감응”에 관하여 김기성, 『자포자기를 만드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226~227쪽과 『비판으로서 도덕』, 326~329쪽 참조.

수렴하는 새로운 만족의 합리성, 즉 심미적 합리성의 척도에 따라 권위적인 사회에 대항하는 반권위적인 저항이다. 마르쿠제가 주장하는 다형적 섹슈얼리티, 즉 개인의 본성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각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반역압적 감성으로서 섹슈얼리티는 저 효율적 체제의 통제와 개인의 자발적 예측으로부터 벗어나 '잃어버린 경험의 세계', 혹은 '아직 겪어 본 적이 없는 경험의 세계'를 찾아나서는 자유로운 의지의 동인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강박적 섹슈얼리티와 억압적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개인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또한 저 경험의 세계, 말하자면 인간존엄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기획하려는 집단적인 실천 속에서만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맺음말

한국 사회에서 성적(性的) 자유주의는, 한편으로 1990년대 이후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신장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영역이 점진적으로 신자유주의화되어가는 과정과 맞물려갔다.⁵⁶⁾ 소비자본주의를 등에 업은 성욕화된 시

56) "1990년대 후반부터 대중음악계에서 불거져 나온 성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이 온전히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기획된 음모론적 현상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담론의 장이야 어떻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합리적 요구는 분명 한국 사회의 개인주의화와 민주화의 진전을 반영한 일련의 진보적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문제는,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자기계발 담론이 그랬듯 이러한 합리적 성담론의 구성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요구와 서로 구별하기 힘들만큼 긴밀하게 융합되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대중음악계의 사랑노래가 점차 섹시코드로 무장한 걸그룹의 이미지들과 함께 성애화되는 과정은 이 점에서 문제적이다." 최유

선의 일상적 전면화 과정은 ‘성 상품화’에 대한 도덕적 문제제기를 무효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⁵⁷⁾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 동작과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들을 담은 수많은 섹시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들은 대중들에게 별 다른 정서적 충격이나 자극을 주지 못하는 눈치다. 성적으로 매력적인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초콜릿 복근’, ‘꿀벅지’라는 말은 몇 해 전부터 일상화되었고 최근에는 ‘쇄골 미인’, ‘황금 골반’이라는 보다 과감한 신조어까지 공중파 방송을 통해 유행되고 있다. 섹슈얼리티의 해방적 잠재력에 주목했던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동경했던 신체의 성애화가 희화화되어 달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불연속적 사건’, 즉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가능성을 읽어 낼 수 있을까?

상품화된 성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한한 지지에 힘입어 ‘외설(猥褻)’에 대한 도덕적 금기가 해체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섹슈얼리티 속에 침잠된 민주주의와 소비자본주의 사이의 공모관계를 드러낸다. 오로지 경제 발전이라는 풋말을 내건 대한민국 열차의 무자비한 폭주 속에서 외설의 소멸과 함께 부끄러움도 소멸하고 있다.⁵⁸⁾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자본주의적

준, 『감정자본주의와 사랑노래』, 『감성연구』 제8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26-27쪽.

57) 이와 관련해서 일루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비문화는 전통적인 성규범과 금기를 현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몸과 관계를 섹스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도록 하는 작업을 놀라울 만큼 성공적으로 해냈다.” 『사랑은 왜 아픈가』, 92쪽. 보드리야르는 소비의 사회에서 육체는 일종의 자산으로서 관리되고,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형식들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즉, 육체는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으로서 추상적 기호의 교환가치를 획득했다. 육체, 아름다움, 에로티시즘이 결합하면서 성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성은 개인적 이윤추구의 장이 되었고, 남녀관계의 변화 또한 초래했다고 보드리야르는 진단한다.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2000, 189-219쪽 참조.

으로 통합된 사회의 적대적 경쟁관계 속에서 개인에게 어떤 도덕적 부끄러움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되어 버렸다. 초(超)도덕적 양상을 보이는 자본주의적 쾌락 추구하고 섹슈얼리티에의 열광 사이에서 동형성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선전문구인 ‘부자 되세요!’가 국민적 덕담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에는 섹시 걸그룹에 대한 ‘삼촌팬들의 환호가 효과음처럼 울려 퍼진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환호 속에서 다형적 섹슈얼리티의 위축과 마비의 증상은 사회적 관계의 질병을 알리는 징후다. 이에 반해 몇 해 전 국내의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쏘아붙인 일갈 “졸지 마!”는 당파성 짙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에로스적 놀이”와 “도덕적 척추”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말하자면 다형적 섹슈얼리티란 정치경제적으로 권위적인 사회의 위압감에 결코 졸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다.

지금 진도의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대참사의 스펙터클은 경제발전의 논리와 실증주의의 논리라는 쌍두마차가 거침없이 만들어 가는 신자유주의의 거센 탁류 속에서 마땅한 것들이 한없이 떠나려가는 현실을 오버랩 시킨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지지해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잃어버린 채 참담한 불신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그 늪에서 에로스적 충동, 즉 인간적 삶의 충동이 살아 있는 섹슈얼리티 또한 질식되고 있다.

58) 부끄러움이란 도덕적 과정, 즉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타인의 시선이 신체에 이식되는 과정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자아가 의식하기 이전에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무의식의 층위에서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규범과,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느끼는 개별성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부끄러움 안에서 작동하는 규범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파악될 수도, 이성적으로 온전히 정당화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은 인간의 신체에 자연사적으로 축적된 도덕적 감정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기성, 『자포자기를 만드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아도르노의 개인파산테제에 대한 분석』, 『범한철학』 제67집, 2012.
- _____, 『비판으로서 형이상학: 아도르노의 신체매개적 비판원리에 관하여』, 『시대와 철학』 제23권 4호, 2012.
- _____, 『비판으로서 도덕: 분노와 저항의 동인으로서 도덕적 경험에 관하여』, 『범한철학』 제70집, 2013.
- _____, 『심미적 경험으로서 사랑: 사랑의 불가능성으로부터 약속된 가능성에 관하여』, 『인간·환경·미래』 제12호, 2014.
- 김양중, 『혹시 우리아이 성조숙증? “놔두면 성장판 닫혀요”』, 『한겨레 신문』, 2012년 6월 18일 기사.
- 그로츠, 엘리자베스, 임옥희 옮김, 『피비우스 피로서 몸』, 여이연, 2001.
- 라이히, 빌헬름, 윤수중 옮김, 『오르가즘의 기능: 도덕적 엄숙주의에 대한 오르가즘적 처방』, 그린비, 2005.
- 루만, 니클라스, 정성훈, 권기돈, 조형준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 마르크제, 허버트, 김인환 옮김, 『에로스 and 문명: 프로이트 이론의 철학적 연구』, 나남출판, 1999.
- _____, 김택 옮김, 『해방론』, 울력, 2004.
- 문광훈, 『숨은 조화 - 심미적 경험의 파장』, 아트북스, 2006.
- 보네위츠, 파트리스, 문경자 옮김, 『부르디외 사회학 입문』, 동문선, 2000.
- 보드리야르, 장,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2000.
- 박권일, 『‘강남 스타일’의 종언』, 『한겨레신문』, 2012년 8월 7일 기사.
- 박이은실, 『급진적 섹슈얼리티 연구 재/구축을 제안하며』, 『여/성이론』 25, 여이연, 2011.
- 버틀러, 주디스, 김윤상 옮김,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성”의 담론적 한계들에 대하여』, 인간사랑, 2003.
- 보개트, 앤서니, 임옥희 옮김, 『무성애를 말하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그리고 사랑이 없는 무성애, 다시 쓰는 성의 심리학』, 레디셋고, 2013.
- 서정환, 『대중음악의 훅(hook)에 관한 정의와 재해석』, 『음악학』 21권, 2011.
- 설현영, 『아도르노의 역사철학 연구』, 『철학연구』 49권 0호, 2000.

- 오세훈, 『씨야 '젠틀맨' 뮤비 털 건전해 어린이들에게 미안... 좋은 작품 다시 보여줄 것』, 『스포츠 동아』, 2013년 4월 25일 기사.
- 이희영, 『섹슈얼리티와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대중 종합여성지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86집, 2010.
- 일루즈, 에바, 김정아 옮김, 『감정 자본주의: 자본은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돌베개, 2010.
- _____, 김희상 옮김,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의 사회학』, 돌베개, 2013.
- _____, _____ 옮김, 『사랑은 왜 불안한가: 하드 코어 로맨스와 에로티즘의 사회학』, 돌베개, 2014.
- 정지섭, 『"말춤, 웃기려 만든 춤 아닌데... 씨이니까 웃겼죠"- '말춤' 안무가 이주선씨』, 『조선일보』, 2012년 9월 7일 기사.
- 정희준, 『씨야의 '포르노 한류', 자랑스럽습니까?』, 『프레시안』, 2013년 4월 18일 기사.
- 젠킨스, 헨리, 김정희원·김동신 옮김,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2008.
- 쿡, 니콜라스, 장호연 옮김, 『음악이란 무엇인가』, 동문선, 2004.
- 푸코, 미셸, 문경자·신은영 옮김, 『성의 歷史: 제2권 쾌락의 활용』, 나남출판 2003.
- 프롬, 에리히, 김병익 옮김, 『건전한 사회』, 범우사, 2001.
- 최미연, 『강남스타일 '말춤'의 무용서사를 통해 본 사회문화적 지형』,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제71권 5호, 2013.
- 최유준, 『〈강남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이다』, 『음악과 민족』, 44권 0호, 2012.
- _____, 『감정자본주의와 사랑노래』, 『감성연구』 제8집, 2014.
- _____, 『대중의 음악과 공감의 그늘』,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 하버마스, 위르겐,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출판, 2001.
- 『강남스타일, '내 스타일』, 『한겨레신문』, 2012년 9월 28일 사설.
- Adorno, Th. W., *Ästhetische Theorie*, Hrsg. von Gretel Adorno und Rolf Tiedemann, Gesammelte Schriften Bd. 7, Frankfurt am Main 1972.
- _____, *Noten zur Literatur*, Hrsg. von Rolf Tiedemann, Gesammelte Schriften Bd. 11, Frankfurt am Main 1974.
- _____, "Schlageranalysen"(1929), in: ders., *Musikkalische Schriften V*, Hrsg. von Rolf Tiedemann u. Klaus Schultz, Gesammelte Schriften Bd. 18, 1984.
- Borck, C., "Sexualität"; *Historisches philosophisches Wörterbuch*, Hrsg. von Joachim Ritter und Karlfried Gründer, Bd. 9: Se-Sp., Basel 1995.

McClary, Susan, *Feminine Endings: Music, Gender, and Sexuali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1.

Schetsche, M./Lautmann, R., "Sexualität"; *Historisches philosophisches Wörterbuch*, Hrsg. von Joachim Ritter und Karlfried Gründer, Bd. 9: Se-Sp., Basel 1995.

Sigusch, Volkmar, *Vom Trieb und von der Liebe*, Frankfurt am Main 1984.

Abstract

Sexuality, or the Embodiment of Social Relationships
: Focussing the analysis of Psy's Music Video "Gangnam Style"

Kim, Ki-Sung • Choi, Yu-Ju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hy does sexuality matter? This question is being raised in the face of the situation that socialization of sexuality has increasing effects on the various areas of life in Korean society, having been highly industrialized in 21st century. Is it a sign of human liberation in terms of the emotional reorganization of social lives through sexual liberation? Or, is it just a process of justifying the release of sexual desires conforming to neo-liberalistic order? For whom, in other words, or for what is the liberation? What promise does it hold? Why does it matter, if it really does?

This essay starts from a standpoint that sexuality is not only an essential mechanism by which individual identities are constructed on the level of sensibility, but a medium through which social and cultural relationships and even class locations are revealed. In order to answer those questions above, we will examine some precedent theories on sexuality first, and then analyze the sexuality represented in Psy's music video "Gangnam Style" released in July 2012.

(key words: sexuality, embodiment of social relationships, sensibility, liberation, Gangnam Style)

■ 위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7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